

하얀이의 숲속 탐험

숲속
진료소+



여자아이 이름은 하얀이에요.
하연이는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안이가 여우와 산책을 나왔어요.
하안이가 여우에게 말했어요.

“여우야 오랜만에 놀러가니까 신나지 않아?!”
“맞아, 너무 신나”





어! 여우가 넘어졌나봐요!

"헉 괜찮아 여우야?"

"아, 아..파..."

여우가 말했어요.

하얀이는 다친 여우를 치료할 약을
찾으러 떠났어요.
얼마 뒤 저기 건너편에
작은 집이 보여요.

"어! 저기 작은 집이 있네.
저기라면 여우를 치료할 약이 있을 거야."



“똑똑, 누구계세요?
아무도 없나?
어 문이 열리네!
여기에 들어가면 약을 구할 수 있을거야”





“우와 ~ 집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크네!”

“너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집 주인 허락 없이 들어와!”

갑자기 뒤에서 집보다 커보이는
검은 곰이 나타나 화났어요.





놀란 하얀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검은 곰에게 말했어요.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내 친구 약을 빌리러 온 것 뿐이라고!”



곰이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 의사 개미들이 살아.
개미들이 다친 친구가 있네.
우리 같이 가서 도와주자.”

그러자 치료를 도와줄 개미들이
지하에서 도구를 챙기고 나왔어요.



